

축구도 즐기고... 금리·경품도 챙기고...

금융권 월드컵 마케팅 열기

대표팀 16강 기원 이벤트 당첨엔 현금 제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금융상품이 붓물을 이루는 등 금융권에 월드컵 마케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추가금리, TV 경품을 내걸고 고객유치전을 펼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여름휴가 지원금, 16강 진출 상금 지급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2010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관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우리나라가 이길 때마다 0.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만기 때 제공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35%로 최고 연 3.65%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이 지난 2월 말 출시한 '오!필승 코리아적금 2010'은 최근까지 452억원, 6만6000좌의 가입 실적을 기록하는 등 상승장을 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남아공월드컵 8강을 기원하며 5월 한달간 2만100명에게 공식 응원 티셔츠를 제공한다.

전국 우체국에서 요구불성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 등)에 신규가입하거나 제휴카드 신규발급, 자동차 약정, 자동차납부 약정, 급여이체 신청 등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증권사들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이벤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옥토 대한민국 승승장구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실적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 중 매주 103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여름휴가 지원금, 백화점·주유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이벤트 참여 자격 고객들 중 28명을 추

가로 뽑아 500만원 상당의 여름휴가 지원금, 3D LED-TV를 선물한다. 펀드·보험 등 우리투자증권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증정한다.

삼성증권은 남아공 월드컵 개막 전까지 'POP골든에그' 상품 및 적립식 펀드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가자, 남아공! 밴쿠버 영광재현 이벤트'를 진행한다.

'POP골든에그'는 1억원 이상, 적립식 펀드는 월 2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표팀이 16강 진출 시 100명에게 5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대표팀이 8강 진출 시 50명을 추첨해 100만원씩 5000만원을, 4강 진출 시 10명을 뽑아 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마트폰도 지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양기 등 농민 지원

김용복(가운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지난 28일 함평군 해보농 농기계은행 사업자에게 이양기 4대를 전달한 뒤 이양기 모내기를 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올해 신규 지원 45대를 포함해 모두 500여대의 이양기를 모내기에 투입한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배당금 155억

내년부터 사회 환원

내년부터 일체의 배당을 받지 않기로 선언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55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8일 금용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285억14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을 54.33% 보유, 배당금은

154억8481만원이 될 전망이다.

핵심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9회계연도에 매출액 3826억원, 영업이익 2174억원, 당기순이익 1695억원을 달성해 당기순이익 기준 2007년 달성했던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박회장은 2008년3월 미래에셋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2010년부터 배당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이양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번 배당이 박 회장에게는 마지막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호남석화, 유화업계의 포스코 만들자”

정범식 사장 직원들에 주문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유화업계의 포스코와 같은 회사가 되도록 직원에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30일 호남석유화학에 따르면 정 사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내 유화업계가 철강업계보다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지 않다”며 “이는 포스코와 같은 업계를 군림하는 확실한 리더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유화업계에 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곳이 나와야 하는 데 그렇게 되려면 (상위권) 업체의 규모가 2~3배 커져야 한다”며 “현재 직원들에게 유화업계의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석유화학은 현재 10억달러 정도의 인수합병(M&A) 자금을 보유했으며, 중국이나 미주, 유럽보다는 동남아와 중동의 유화업체를 M&A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 사장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중銀 중기대출 예상밖 부진

올 증액 예상치 10분의 1수준

올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액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잔액 기준으로 497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출액인 469조5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이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 등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은행들이 올해 작년 대비 29조9000억원(6.4%) 증가한 499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돼 있었다.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지만 올해 증액 예상치인 29조9000억원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대출이 늘어난 셈이다.

중소기업청은 대출 증액치가 예상

보다 크게 밀도는 배경으로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된 점을 꼽고 있다.

업황이 좋아지면서 중소기업들도 자금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이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면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에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위축 투자심리 점진적 회복 대형 우량주 저가 매수 기회

주간 증시 포커스

남유림 위기 등으로 코스피는 5월 한 달동안 32조6000억원(3.5%)의 시가총액을 잃어버렸지만, 6월을 맞이하는 증시에는 개선의 여지가 발견되고 있다.

과도하게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코스피지수를 1,600선 아래로 끌어내렸던 북한 관련 리스크의 경우 과거 그랬듯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1,194.9원에 마감되면서 북한의 전면적인 전투태세 보도가 전해지기 직전 환율(1,214.5원)을 하회했고, 코스피지수는 주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1.4% 상승했다.

또 유로존 리스크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에도 코스피의 지지력이 1,600선에서 형성돼 있었음을 고려하면 지난주의 과매도 국면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 증시는 유렵변수가 지속적으로 잔류하되 추가적으로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1,600선의 지지력을 회복하는 등락흐름이 예상된다.

남유림 위기를 둘러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던 5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6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앞으로의 국내 증시의 회복탄력은 이들의 동향이 절대적으로 좌우할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난 주말 외국인들이 10영업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반갑지만, 단 하루의 순매수로 당장 이들의 순매수 전환을 말할 수는 없다. 남유림 문제로 인한 유럽계 단기성 자금의 이탈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켜볼 변수는 크게 유로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동향이다. 급락하고 있는 유로화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반등을 언급하기 어려운 모습이고, 유로존 금융권의 불안감으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리보금리도 큰 변화는 없다.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불안심리, 불안정한 수급구조, 쉽게 축소되기 어려운 변동성 등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에서의 투자심리도 일시에 돌아서기는 어렵겠다.

그러나 시장이 지난주의 급락 국면으로부터 벗어나 기존의 지지선으로 회귀함에 따라 위축된 투자심리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상대적 안전성이 높은 블루칩에서 선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주 관심의 초점도 우선적으로는 대형 우량주에 맞춰나가는 점진적인 시장접근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82) 227-9940
 순천점: (061) 753-9940
 목포점: (061) 2E2-9200
 홍성점: (092) 227-9970

1시간 40분 제주도가 더 가까워집니다.

ORANGE

7월 2일

경남진명(양동) 출발 08:40 - 도착 10:20
 출발 15:10 - 도착 16:50

경산포항(재주) 출발 12:00 - 도착 13:40
 출발 18:30 - 도착 20:10

이젠 내차로 제주도를 달린다

편의여행 10종

가스민여행사

문의: TEL 051-753-2721 FAX 051-753-3003